



2005년 6월 14일

프랑스 Regional 사, 롤스-로이스의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에 서명

에어프랑스-KLM(Air France-KLM)의 100% 지분 자회사인 Regional社は 6월 14일 파리 에어쇼에서 롤스-로이스와 49대의 엠브레어(Embraer) 및 포커(Fokker) 쌍발 제트기용 엔진에 대한 서비스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계약에는 Regional사 소속 37대의 엠브레어 ERJ135기 및 ER145기의 엔진인 AE 3007 엔진에 대해 2014년까지 TotalCare 적용과, 12대의 포커 70 및 포커 100에 장착된 일부 테이(Tay) 엔진에 대한 공장 방문정비 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Regional사 필립 베셀롯(Phillippe Berthelot) 최고운영책임자(COO)와 계약을 체결한 롤스-로이스의 기업 및 지역 항공기 부문 이안 아이트큰(Ian Aitken) 사장은 “파리는 항공산업의 기술혁신을 보여주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에어쇼는 우리는 인기있는 에프터마켓 패키지의 최신 성과를 축하하기에 최적이다.”

“Regional사는 중요한 고객이다. Regional사는 엔진 정비 업무를 엔진 제조업체인 우리에게 이양하고 확실한 예산을 보장받음으로써 운용적 측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Regional사가 보유한 항공기의 80% 이상이 롤스-로이스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이 항공사는 AE3007 및 테이 엔진 이외에 AE2100 엔진을 6대의 Saab 2000 항공기에 탑재 운용한다.

Notes :

1. Regional사 본부는 프랑스 낭트(Nantes)에 위치해 있으며, 기지는 클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과 릴(Lille)에 위치해 있다.
2. 전세계 지역 항공사의 40% 이상이 롤스-로이스 엔진을 사용한다.
3. 롤스-로이스는 ERJ145가 1996년 상용화 된 이후로 1,900대 이상의 AE 3007 엔진을 엠브레어에 인도하였다. 인도된 엔진들의 총 누적시간은 1,700만 시간이며, 이와 동일한 수만큼의 왕복회수를 누적했다.
4. 롤스-로이스 지역 항공기 엔진의 약 90%가 TotalCare 계약을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이며 개별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아래, 롤스-로이스 비행시간 당 합의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항공사에게 엔진 정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닌다.

문의: CPR 차유정 02-739-7353 / junecha@icpr.co.kr
추윤희 02-739-7313 / katechoo@icpr.co.kr